

# 여수 · 광양항 선박 통항분리항로 설정

## 대형선박 통항증가로 하반기부터 운영

여수 ·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하반기부터 여수해만에 입출항 통항분리 항로가 설정된다.

여수 · 광양항 입구는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입출항이 잦아 입출항 선박간 충돌 등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1988년부터 교통안전 특정해역으로 지정 · 운영돼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의 석유 · 화학 · 제철산업의 확장으로 선박 통항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광양항에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가 개발중이어서 대형 컨테이너선의 통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항로체계로는 안전한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문가

의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해만의 출입항로를 육상도로의 차선 개념과 유사하게 3개 항로로 구분해 양쪽 바깥항로는 일반 소형선박이, 가운데 항로는 길이 200미터 이상의 대형선이 통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로를 가로 질러가는 선박이나 정박지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을 위해 항로 중간에 도로의 횡단보도와 유사한 주의해역을 설정해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항로 주변에 항로를 표시하기 위한 등부표 등 항로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 무인등대 소형 등명기 국산화 성공

### 2007년까지 전국 700여곳에 설치완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인표지용 소형등기로 무인등대, 등표에 설치돼 야간 18km까지 비출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표지용 소형등명기의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2007년까지 우리나라 연안의 무인등대와 등표 700여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양부는 국내 항로표지시설에 사용 중인 등명기가 36종에 달해 이용자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7종의 표준기종을 선정했으며 2종은 지난 2003년까지 국내기술로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해양수산연구개발 과제로 무인등대용 등명기(전자식 250m/m)를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표준과 학원과 뉴마린 엔지니어링의 산 · 연 협력을 통해 최근 국산 등명기 개발에 성공했다.

국산 등명기는 외국산보다 성능이 좋아 불빛이 밝고 제작금액은 오히려 적게 들어 예산절약과 국내 기술기반 구축, 경제활성화에 두루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올해안에 표준기종인 300m/m 등명기와 LED200m/mH 등명기를 개발해 항로표지에 설치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연안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